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형성과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공헌*

조 호 순¹ · 조 미 경² · 이 경 은³

¹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 교수, ² 대전보건대학 간호과 부교수, ³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 조교수

* 학위논문 또는 연구 재정보조
관련: 비학위논문, 재정보조
* The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The Emergence of the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and its Contributions to Korean Immigrant Societies in the U.S.

Ho Soon Michelle Cho¹ · Mee Kyung Cho² · Kyoung Eun Lee³

¹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exas Woman's University

²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³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exas Woman's University

주요어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역사적 회고적 방법, 미주
한인사회

Key words

The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Retrospective historical
analysis, Korean immigrant
societies

Correspondence

Cho, Mee Kyung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Tel: 82-42-670-9374
E-mail: mkcho@hit.ac.kr

투 고 일: 2011년 6월 1일
수 정 일: 2011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9일

Abstract

Purpose: To describe the emergence of the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NTKANS) and to examine its sociocultural contributions to Korean immigrant societies in the U.S. for the last half century. **Methods:** The study used retrospective historical analysis to explore the first North Texas Korean immigrant nurses' footsteps. Using Christy's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explored themes found in the NTKANS Minutes, the directories, and newspapers, and compared them with historical nursing contexts found in documents, immigrant nurse's pictures, and letters. Interviews with twenty first immigrant Korean nurses, the members, were also used as main data. **Results:** Since its emergence in 1969, the NTKANS have contributed to local Korean societies through community medical services, financial supports to local Korean associations, local publications, and opening Korean school. In addition, the society has contributed to the other Korean immigrant nursing societies in the U.S. **Conclusion:** The sociocultural contributions NTKANS had made to Korean immigrant societies were not possible without its members' enormous efforts, personal struggles, and altruistic dedications. The trials and tribulations these immigrant nurses have overcome and the achievements they made for last half century would greatly inspire students and nurses in Korea who may seek international leadership and scholarship.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이주를 통한 인력의 세계화가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간호사들의 미주
취업이민의 열의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
에서 반세기 이전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과 고난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큰 자리 매김을 한 초창기 해외
취업 한인간호사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이타적 봉사정신을 통해

그 지역 한인사회에 끼친 공헌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한국 간호학의 전문적, 학문적, 그리고 개인적 세계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와 사회적 기여도를 생동감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간호역사에 대한 연구, 특히 해외 이민 간호역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FTA 등과 같이 간호전문직을 통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간호전문직이 세계화된 것은 단순히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60년 이후부터 해외 한인간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더욱 의미 있다고 본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60만 명의 재외 한인동포가 있다. 이 중 미국에 160만 명의 동포가 있으며 그들 중 2만 명이 해외 취업 한인간호사들이다. 그리고 독일, 호주, 노르웨이, 일본, 중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1만 명 이상의 한인간호사가 분포되어 있다. 이 간호사들은 197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전문직으로 해외취업 이주를 하였다(Choi, 2007). 한국간호사들의 해외진출은 1964년 서독으로의 취업이 효시가 되었다. 서독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한인간호사들은 근면, 성실하고 정확하게 일을 한다는 평판을 받아 그 이후 지속적인 취업 이주를 할 수 있었다(Yu, 2003). 1965년 하트-셀러 이민법(Heart-Cellar Act) 통과됨으로써 고학력을 가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유럽 사람들(영국, 아일랜드, 독일)에게만 특혜를 준 과거의 법안과는 달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친지 그리고 특정 기술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안이었다. 그래서 17만 명의 아시아인 이민자들이 해마다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1965 Immigration & Naturalization).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인 의사 3천명, 간호사 2천 5백 명, 약사 8백 명, 치과 의사 1백 명 가량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Choi, 2007). 따라서 1965년 이후, 미국사회의 부족한 간호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간호사들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면서 한인간호사들의 미국 취업이민이 본격화 되었다. 그 당시 결혼이나 유학을 위한 개인적 이민은 매우 적었고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식료품 가게나 세탁소 등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 취업이민은 그것이 전문직 지식층의 집단 이민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의 의의가 매우 컸다. 국가적으로는 고급 전문인력이 해외로 배출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과 국내의 어려운 취업 환경의 압박감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대부분의 미주 취업 한인간호사들은 텍사스, 중서부(시카고), 남가주, 뉴욕 그리고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미주 한인 이민 간호사회는 현재 기록상으로 위의 주요 취업 지역에 5개의 회가 있다. 1968년 11월 20일 달라스 파클랜드(Parkland) 병원 기숙사에서 21명의 회원이 모여 달라스 대한간호협회 지부를 발족시켰으며, 이후 1969년 5월 24일 텍사스 달라스의 Bachman Lake에서 21명이 첫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중서부(시카고) 지역 한인간호사들은 1969년 7월 15일 30여명이 장미식당에서 창립총회 준비위원을 선출하여 1969년 9월 3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또 비슷한 시기인 1969년 7월 30일 40명의 남가주 한인 간호사회의 회원들은 로스앤젤레스 중앙교회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10년 후 1979년 11월 10일 뉴욕의 플러싱 YMCA에서 뉴욕 회원들이 첫 모임을 갖고 뉴욕 한인 간호사 문제 협의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하와이 간호사회가 2003년 9월 15일에 발족되었다(Yu, 2003; Park, 2003).

역사적 회고적 방법을 이용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회의 역사적 출범 의의와 그 회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주 한인사회에 끼친 공헌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FTA 등과 같이 간호전문직을 통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첫 미주 이민간호사들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20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진 초창기 미주 취업간호사들이 미주 한인사회에 끼친 영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 시행착오를 통한 어려움의 극복,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역사적 연구방법으로써 개인의 회고록적 면담과 연구 목적에 부합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즉,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의 형성 과정과 활동, 그 회원들이 미주 이민사회에 끼친 공헌 등을 회고적 방법(retrospective method)을 이용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서술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들은 북 텍사스 내에 거주하는 1966년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간호사 25명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0.8세(범위: 55-85세)로 이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당시 평균 연령은 30.4세, 그리고 미국 체류기간은 평균 40.3년이었다. 참여자 중 3명은 미국인과 결혼하였고 1명은 독

신으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21명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며, 연구 당시 이들 중 4명은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3년제 간호대 졸업자는 12명, 4년제 간호대 졸업자는 10명, 그리고 3명은 대학원 졸업자였다. 연구 참여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으로, 면담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 전 모든 간호사들은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연구 특성상 익명성이 유지 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원할 때는 언제나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연구 동의서에 싸인 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개인면담 자료와 역사적 자료 2가지로 구분하였다.

1) 개인면담 자료

연구를 시작할 때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원들에게 논문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첫 미주 한인간호사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객관성 있는 자료 수집과 개인면담에 응할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지역 한인신문에도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신문을 보고 연구자료 모집과 개인면담에 응하겠다는 간호사가 많지 않아 다시 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소개해 주는 ‘눈덩이 굴리기(Snow sampling)’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일대일 개별면담 형식이나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공된 설문지에 답변을 하지 않고 면담을 한 간호사들에게는 같은 설문지 내용을 기준으로 면담을 하고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하였다. 면담은 연구 대상 간호사 본인의 집이나 직장 사무실 내에서 2005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수행하였다. 다음은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들이다.

- ① “첫 미주 한인 간호사회 창립 회원, 창립 년도, 장소, 형성 과정은 어떠했나요?”
- ② “북 텍사스 한인 간호사회의 주요 역할과 활동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③ “북 텍사스 한인 간호사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미주 한인사회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 ④ “북 텍사스 한인 간호사회가 대한간호협회와 타주 재미간호협회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역사적 기록 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기록 자료는 달라스에서 발행된 신문

(1976-2011년), 재미간호협회 신문(1980 - 1999년), 재미 간호인록(1983, 2003), 북 텍사스 간호사 간호인록(1968-2006), 북 텍사스 한인 간호사회 초고(1968-2011)와 회원들이 소장한 개인 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회원들 활동을 담은 사진 자료 또한 2005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역사의 일면을 조사하면서 정확성, 타당성, 역사성을 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역 한인신문이나 간호사회를 통해 공개발표 방법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신문이나 사진 등을 신중하게 수집하여 년도, 장소, 인명 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는 면담내용과 자료를 제출한 간호사들에게 다시 검증을 받아 그 객관성을 확보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간호역사 학자인 Christy(1975)가 수립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y)을 이용하였다. Christy에 의하면, 역사적 연구는 (1)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그리고 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사실과 주제를 확인하고, (3)해석을 위하여 이 주제들을 분석하며, (4)참고자료들을 의미 있는 틀 안에 배치하고, 또한 (5)개념의 공통 세트를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서 특정 사건 간의 관계성과 유의성을 파악하고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구분한 다음,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North Texas Korean(1967-2011년)의 연혁(부록 참조)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형성 과정과 그 회원들의 활동들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그리고 왜의 기틀에 맞춰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사진, 신문기사 등이 이 연구의 연구 질문에 타당한 내용인지를 대조하면서 연대순으로 서술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1.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형성 과정 (1968-2011)

기록에 의하면, 첫 한인간호사들의 미국진출은 개인 단위의 유학이나 방문으로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 1947년 유순환, 1953년 이송희, 1955년 이종선, 1957년 차상옥 등이 그들이다.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의하면 한인간호사의 미국 진출은 1953년까지 총 13명, 1967년 2월까지 81명 그리고 최근 기록으로 1989년까지 총 1,64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Lee, 1991).

1967년에 달라스 파크랜드 병원에서 43명의 한인간호사들에게 한꺼번에 취업 영주권을 내준 것은 한국 이민사에 기록되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 그 이후 43명에서 수백 명의 한인간호사들이 취업이민을 하였고 그때 함께 미국 땅을 밟은 간호사들은 주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시립병원, 국립철도병원의 간호학과와 국립의료원 졸업생들이었다(Korean American Society Role Model: Dall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1999; American Korean Immigration History, 2005).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는 1967년 달라스 파크랜드 병원에 취업 이민을 한 간호사중 21명의 간호사들의 의해 창립되었다.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는 1968년 11월 20일 파크랜드 병원 기숙사에서 '달라스 대한간호협회 지부'로 발족한 이후, 1969년 5월 24일 텍사스 달라스의 Bachman Lake에서 그 21명의 회원이 모여 첫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북미 전 한인 이민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전문 고급 인력의 모임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초대 회장에 방숙자(서울시립 졸), 부회장에 유분자(대전간호 졸), 총무에 명규인(연세대 졸)이 선출되었다. 1년 후 방숙자 회장과 유분자 부회장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로 각각 이주함에 따라 임(호)홍옥(연세대 졸) 회장이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초,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달라스의 파크랜드 병원으로 와서 3년간 심장수술 훈련을 받고 귀국하신 분이 홍필훈 선생님이다. 홍필훈 선생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개심 수술을 한 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홍 선생님이 파크랜드 병원 흉곽외과 과장 Dr. Robert Shaw한테 개심술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홍 선생님은 나를 Dr. Shaw에게 추천해서 초청장을 받도록 주선하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나의 도미 계획은 시작부터 단기 방문으로 추진된 것인데 초청장을 받고 수속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65년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서 전문직 이민 케이스로 분류되어서 이민수속으로 둔갑이 되었다는 것이다. 수속은 의외로 순조로이 진행되어서 3개월도 채 안돼서 1966년 11월에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 된 후 그때까지 나는 한국에서 파크랜드 병원으로 온 최초의 한국 간호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크랜드 병원으로 취업이민을 온 최초의 동양인(중국인) 간호사' 라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2005년 9월 최만자와의 면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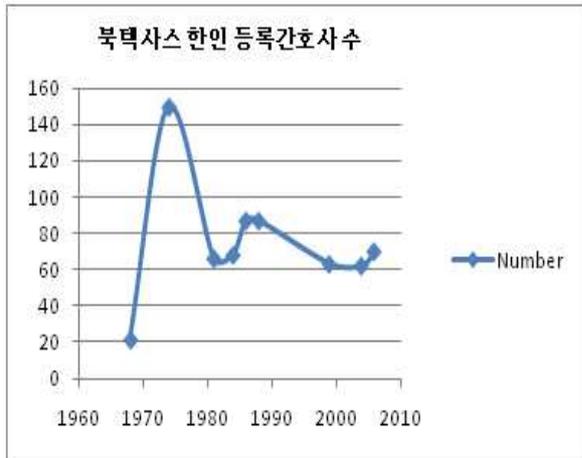
"1966년 11월 나는 세브란스 부간호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민 수속을 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로 심장 수술을 집도한 홍필훈 박사(연세대 간호학장 홍신영 박사의 남동생)의 주선으로 최만자 씨가 파크랜드에 오게 되었다. 그 후 이미지 박사(Chicago Univ. 부총장)가 미대사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1965 이민법 개

정 소식을 선후배들에게 알려줘서 많은 간호사들이 취업 이민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간호사 이민의 문이 쉽게 열린 곳은 파크랜드 병원이었다고 그 당시 미국은 전반적인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66년 말 최만자씨가 파크랜드 병원 근무 중에 손기자 씨가 왔다. 손기자 씨는 남편 손문제 씨가 공군에 있을 때 달라스 지역으로 연수를 온 인연을 계기로 미국 이민수속을 했는데 이민법이 바뀌면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 내가 1967년 7월에 달라스에 오게 되었다. 1968년 11월 20일에는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파크랜드 병원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병원 기숙사 로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간호원장, 감독, 비서, 수간호사 등을 초청하여 행사를 열었다."(2006년 3월 22일, 임홍옥과의 면담내용)

이민 초창기에 등록된 회원 수는 150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간호사 이민이 줄어들기 시작한 1990년도부터 70명 정도가 되었다. 1990년도 전에는 매년 40-60명이 달라스에 취업 이민을 했으나 타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으로 이동하는 간호사 수가 많아졌다. 그 당시 등록간호사는 62명에서 150명 정도로 기록되었다. 1970년 당시 북 텍사스의 한인 인구는 200여 명이었는데 그 중 150 여명이 간호사였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간호사들도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Descending White Angels, 1999). (그림 1은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 등록 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2)는 45년 동안 보관되어 온 간호사 명부 책자로 196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권으로 되어 있다(Cho, 2011).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는 1960년대 초기 전문인력의 집단 이민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내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간호사회를 창립하였고, 이를 주축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Cho, 1983). 간호사들의 집단 취업이민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이 초청되면서 오늘날의 달라스 지역 한인사회가 형성되고 정립되었다. 즉 초기 북 텍사스 이민사회 형성에 있어서는 미주 이민간호사들과 그 가족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American Korean Immigration History, 2005; Dallas Korean Society President, 2006; Korean American Nurses Gather into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99). 그 간호사들과 가족에 의해 간호사회, 한인사회, 상공회, 한인학교 등이 창립되고 발전되었으며,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간호사, 간호지도자, 교육자, 간호경영자, 그리고 사업가로 성장하였다.

2.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원들의 활동 사항 (1968-2011)



〈Figure 1〉 Total Numbers of Members Registered -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from 1968 to 2010.



〈Figure 2〉 Directories-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원들은 지역 한인교민들의 복지, 건강, 교육, 교민들간의 결속, 의료 봉사, 국내의 간호계 발전을 위한 후원, 교육 및 출판 등의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 활동으로서는 한인회 행사에서 응급처치 봉사(American Korean Immigrant History, 2005; Dallas Korean Nurses, 1983)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인들이 미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한 한인환자를 위한 통역 및 교통편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여 왔다. 특히 독감 예방주사 접종, 그리고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Mammogram 검사와 한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립선 암 예방을 위한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동안 100-300여 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받았다(Benefits of

Koreans, 2006; Big -D, 1985; Im, 1982).

의료봉사 활동 이외에도 지난 45년 동안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는 국내의 여러 간호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 왔다(표 1). 1968년 대한간호협회에 건물 설립 기성회비를 달러로 송금하였고, 1972년 대한간호협회 기념행사에 후원금을 모금하여 보냈다. 1987년에는 국제간호협회를 개최하는 대한간호협회(재미간호협회)에 후원금을 보냈고, 1989년 재미간호협회에 후원금을, 1996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간호협회에도 지원금을 보냈다. 1999년, 2000년, 2010년에 연변간호대학 건물 설립을 위해 세계간호선교회에 지원금을 보냈다. 그리고 1983년 대한간호협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에 임(호)홍옥 이사가 연사로 참석하게 되어 비행기표를 지원하였으며 1984

〈Table 1〉 The North Texas(Dallas) Korean society-Donation of Funds to Various Organizations

Year	Amount of Donation(\$)	Name of Organization	Year	Amount of Donation(\$)	Name of Organization
1968	300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1	330	Korean Language School
1972	300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137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The World
1984	500	Korean Language School	1999	1,000	Christian Nursing Foundation(WCNF)
1985	2,000	Andong Nursing School	2000	2,350	WCNF
1987	5,000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0	2,000	WCNF
1989	1,000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년 달라스에서 개최한 한인간호사 대표자 15명에게 식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때 LA의 이송희 선생님의 비행기표를 보내 주었으며 간호사회 활동 범위를 넓히고 대한간호협회와 재미간호협회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또 1985년 안동 간호학교에 장학금을 보냈고 1984년과 1991년에 달라스 한인학교를 위해 후원금도 기증하였다(Health Fair, 1984; North Texas Korean Nurses, 2001;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Minutes 1967-2011, 2011).

1979년부터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개별화된 교육을 해 왔다. 강사진은 미국인을 포함하여 북 텍사스에 먼저 온 한인간호사 선배들이었으며 교과목을 매년 새롭게 하여 달라스의 한인간호사들에게 시험에 대한 지문 및 취업상담을 하였다. 또한 여러 회원들이 해마다 북 텍사스 지역신문에 건강관리, 응급처치 및 유방암 예방 관련 논문을 정기적으로 기고하여 지역사회 한인교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는 한국의 대한간호협회와도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왔다. 국제간호 협의회에 참석하는 한국간호협회 대표단을 환영하고 상호간에 지식 및 기술을 교류하였다(Korean Nursing Leaders, 1969). 한국에서 온 심장병 수술 어린이를 위한 통역 및 간호를 제공하였고(Heart Disease Korean Children, 1984), 2001년부터는 Texas Woman's University 간호 대학과 연계하여 한국 여러 간호대학의 교환교수 연수를 도왔다. 최근에는 Global nursing program을 통해 한국의 한 간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 대학을 방문한 한국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도 개최해 젊은 간호학도들을 격려하

고 후원하였다. 회원들 간에, 그리고 회원 가족들과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미국 명절에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 왔고, 회원 상호간의 기술 향상을 위해 간호사회 회원 보수교육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68년부터 2011년까지 북 텍사스 간호사회 회원들은 7권의 다양한 형식의 책을 발간함으로써, 이민 간호사로서 본인들의 삶과 간호학 스승에 대한 추모, 그리고 의학소설 등으로 많은 한인들에게 깊이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표 2). 조(이)호순 박사(경상대 간호대학 1969년 졸업)는 한국 간호학계 지도자인 김모임 박사(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간호계와 보건계에 남긴 업적을 한국 간호역사와 연결시켜 1997년에 「A Korean Dream: Mo Im Kim Influences on Korean Nursing, Health, and Community」이라는 영문 책자를 출간하였다. 또한 1999년 임(호)홍옥(연세대 간호대학 1951년 졸업)을 주축으로 존경하는 연세대 간호대학 김재금 스승이 타계한 뒤 그 제자들이 원고를 모아 발의하여 「사랑의 스승 김재금」이라는 추모 모음집을 편찬, 연세대 간호대학 북미주 동창회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최만자 간호사는 달라스 파크랜드 병원에 최초 취업이민을 한 간호사들 중 한명으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1965년에 졸업하였다. 2005년 본인의 간호사 인생 자서전 형태로 출판된 「만주에서 태어난 자녀: 최만자」는 그 작가의 일생을 특히 파크랜드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A Korean Dream: Suni and Soon: Cross the Golden Bridge」는 2005년에 조(이)호순 박사에 의해 Texas Woman's University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재미교포 2세대와 미국 사회에 인본주의적인 통일 한국

(Table 2) The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Published Books References

Author	Year	Title	Publisher
H.S. Cho	1997	A Korean Dream: Mo Im Kim Influences on Korean Nursing, Health, and Community	Hyun Mun publishing Co, Seoul, Korea
H.O. Im	1999	Beloved Teacher Jae Kum Kim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Alumin in North America, Seoul, Korea
M.J. Choi	2005	A Daughter was born in Manchuria: Man Ja Choi's Biography	Dallas, Texas
H.S. Cho & M.N. Cho	2005	A Korean Dream: Suni and Soon: Cross the Golden	Texas Woman's University Press, Denton, Texas.
Y.S. Shon	2006	The Window of my Heart.	Corea printing, Dallas, Texas
S.J. Oh	2010	Such a Blessed Time	Corea, Dallas, Texas
H.S. Cho	2011	Angels in White: The North Texas Korean Nurses Society	Good Life Publishing Inc, Houston, Texas

을 알리기 위해 출간된 어린이를 위한 통일 염원 영문 책자로서, 한국의 입지적인 조건, 평화통일 염원과 번영을 The Golden Bridge(황금다리: 한국)에 비유하여 순수한 인간의 영혼에 희망을 갖고 평화통일을 갈구하는 두 아이의 이야기이다. 육군 간호사관학교를 1954년에 졸업하고 달라스 병원에서 32년을 간호사로 근무한 손영숙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힘든 건강 여건 속에서도 강건한 의지에 힘입어 영문소설 『The Window of My Heart』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담은 사랑과 갈등, 삶, 죽음을 그린 의학 소설로 2006년에 출판되었다. 전남대 간호대학을 졸업한 오성자는 196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다 1972년 미국으로 건너 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최근 병고로 어려움을 당한 후, 2010년 병상에서 시집 『축복이여 이처럼』을 출판하였다. 『Angel in White: The North Texas Korean Nurses Society』는 2011년에 조(이)호순 박사에 의해 출판되었고 이 책은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 회원들이 지난 45년간 보여준 간호와 인간에 대한 애타정신을 서술한 책이다.

또한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원들은 임상에서 책임감 있는 성실한 간호사로서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활동함으로써 지역한인 이민사회안에서뿐 아니라 북 텍사스와 미국 사회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실례로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임원으로 일한 임(호)홍옥 간호사와 미국 특허국으로부터 유방암 환자복을 특허한 조(이)호순 박사는 텍사스 최우수 100명의 간호사 중 일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Cho & Paek, 2006; The Great One Hundred Nurses, 1997). 조(이)호순 박사는 달라스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장직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 역시 인정을 받아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평화통일 위원으로서의 위임장을 받고 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북 텍사스 간호사회원들이 근면과 성실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의 결과로서 미국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아시아 대표로 일하고 있는 심순자(장로) 간호사, 텍사스 투석센터의 책임관리자(Vice President)로 일하는 박기남 간호사, 텍사스 주 건강 조정(Coordinating) 위원으로 미 수술실 간호사 임원으로 일한 최만자 간호사 등이 바로 그들이다(Diabetic management, 2008).

마지막으로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 회원들은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뿐 아니라 이타정신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도 지대한 노력을 하여 그들의 자녀들 중 대다수가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변호사, 정치인, 과학자, 및 경제인이 되어 미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한 회원의 면담 내용은 본인인 해의 이주 간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간호사의 가정이 다른 전문 직업의 가정에 비해 인성교육에 더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는 애타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가정 자녀들 대부분이 좋은 교육과 인성을 배경으로 자기 전문직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나는 현재 두 아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집안에서의 인성교육과 사회에서의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우리 사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달라스에 있는 많은 간호사 가족의 자녀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 그리고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모든 환자들이나 의사, 동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면허 시험을 통해서 영어독해나 청취가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집에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숙제나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었다.”(2010년 1월 20일, 고현정과의 면담내용)

3. 북 텍사스 간호사회 회원들이 북 텍사스 한인사회 발전에 끼친 공헌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원들은 북 텍사스 한인사회의 이민 기반을 닦고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그들의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모범적인 사회생활은 지역한인들의 결속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처음에는 최만자를 비롯하여 1967년 43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달라스 파크랜드 병원으로 취업을 하였고 뒤이어 많은 간호사들이 취업이민을 오게 되고 점차 그 수가 증가하면서 가족 초청으로 이민 역사가 탄력을 받았다. 그들의 직계, 방계 가족들까지 초청되면서 북 텍사스 지역 한인들의 빠른 인구증가를 가져왔다(Cho, 2011). 따라서 그 당시 이민간호사들과 남편들, 그리고 그들의 초청이민으로 정착한 가족들이 이 한인사회를 구축하고 이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달라스 지역에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SMU), Texas Christian University(TCU), 그리고 South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등의 신학 대학이 있어 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신학생들과 다른 일반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들, 그리고 포트워스 지역의 군인가족들로 초기 한인 이민사회가 구성되었다(American Korean Immigration History, 2005; Descending White Angels, 1999). 1969년 2월 임(호)홍옥 간호사의 남편인 호원규가 달라스 한인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3대, 4대, 6대, 7대 회장으로 한인회를 이끌었다. 이 후 1999년 30대 한인

<Table 3> The North Texas (Dallas) Korean Society-Presidents and their RN Wives List

Year	Name of presidents	Name of RN wives	Year	Name of presidents	Name of RN wives
1969	Ho, WonKyu	Im, HeungOk	1978	Kim, Jinkyu	Kim, Maria
1971	Ho, WonKyu	Im, HeungOk	1979	Jung, InKuk	Jung, YonKi
1972	Ho, WonKyu	Im, HeungOk	1981	Choi, BongTae	Lee, YoungSook
1973	Kim, Bonghee	Kim, Bonghee	1982	Kim, InKon	Kim, JungLim
1974	Ho, WonKyu	Im, HeungOk	1983	Suh, JongSoo	Suh, AeMi
1975	Ho, WonKyu	Im, HeungOk	1984	Kim, SunYoung	Kim, MinYoung
1976	Kim, NaeUng	Kim, UnSoon	1985	Kim, NaeUng	Kim, EunSoon
1977	Kim, NaeUng	Kim, JungHee	1988	Jung, HaeDon	Jung, YoungHee
			1999	Lee, HwanSoo	Ko, HyungJung

회장까지 다수의 간호사 남편들이 한인회를 이끌어 봉사하였다 (표 3).

간호사회원들과 남편들이 주축이 되어 달라스 지역에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이 지역 한인 2세 어린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글을 가르치기 시작 하였다. 김영자 간호사의 남편인 이강복이 초대 이사장으로 봉사하였고 김정희 간호사의 남편인 방원근이 초대 한글 학교장을 맡았다. 그 이후 달라스 천주교회 한글학교를 창립하여 조(이)호순 간호사가 초대교장으로 봉사하였다(Cho, 1988). 1990년 이후 김정남 간호사도 한글학교 이사장으로 봉사하였다. 초창기 한인사회의 한글문화를 지키고 2세대에게 교육하고자 한 이 같은 노력을 근간으로, 오늘 날 달라스 주변지역에서 활발한 한글학교 활동이 이루어져 현재 수천 명의 한국인 2세와 3세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매주 배우고 있다.

호원규, 김래웅, 그리고 김인곤 등의 북 텍사스 간호사회원 남편들이 초대 부회장과 회장으로 봉사한 한인상공회는 지역 상공인들의 정보교환과 권익을 위하여 1976년에 조직되어 그 활동을 시작 하였다(Dallas Korean Society President, 2006; Korean American Society Role Model: Dall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1999). 또한 이때부터 많은 이민간호사들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김영자 간호사의 남편 이강복은 1971년 4월 고바우 식품점과 식당을 열어 한국 식품을 교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최봉태, 이영숙 부부가 한인여행사를 처음 개업하여 교민들의 한국과 미국 내 여행 등을 도왔다. 김 마리아 간호사의 남편은 이 지역에서 처음 한인 보험회사를 열었고, 고현정 간호사의 남편 이환수는 Harry Hines에서 첫 한인 쇼핑상가를 열어 한인 타운을 개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Cho, 2011). 고현정 간호사는 그 당시 초창기의 달라스 한인 타운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다.

"Harry Hines 거리는 한인들이 이룬 기적의 거리가 되었다.

가장 적절한 중심지를 찾기 위해 달라스 주변 지역에서 이 거리까지 수없이 오가면서 시간을 재어 지금의 신촌 Plaza를 찾았다. 이곳이 곧 달라스 한인 타운의 첫 본적지가 되었다. 그 시기는 1987년 7월 무렵이었고 처음 목적은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사무실을 한 장소에 모으고 결국 한인들의 친목과 영리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인 타운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생각은 이미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에 형성되어 있는 한인 타운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서 달라스에도 한인 타운을 만들게 되었다. 1987년 우리가 쇼핑센터를 계약하기 전에 이 부근 지역에는 한산무역의 장덕환씨, 자이언트 무역, 산문무역의 문대동씨, 부동산 소개업소 김인태씨, 그리고 한인여행사의 최봉태씨 등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 35여 개의 상점과 사무실로 구비된 쇼핑센터를 계약한 후 그 센터의 모든 상점의 임대료가 완료되기까지는 3년이 걸렸고 그와 동시에 그곳은 한인 사업가들의 집결지로써 한인 타운의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했다."(2010년 1월 20일, 고현정과의 면담내용).

한인회, 상공회 회장과 평화통일 위원으로 일한 바 있는 김은순 간호사의 남편 김래웅은 지금 달라스 중심부 Harry Hines 거리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Inter Mart를 운영하고 있다(The First Step of the Immigration, 2004). 그를 비롯한 많은 간호사들이 남편과 함께 북 텍사스 지역에서 쇼핑센터를 운영, 사업에 큰 성공을 하였다. 즉 오늘 날 수만 명의 한인들이 북 텍사스 지역에서 자리 매김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한인사회와 미국사회를 연결하며 한인사회를 널리 알리며 그 위상을 높였고 타 이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초창기에 한인회라는 구심점을 만들었다. 결국 한인들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어 내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북 텍사스 간호사회원과 그들의 남편들이 큰 공헌을 하였다.

4.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가 역대 다른 재미간호협회에

미친 영향

1976년 7월 30일에 LA에서 미주 한인간호사들의 단결과 임상 간호의 질적 향상, 대한간호협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미간호협회는 바로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가 그 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북 텍사스 간호사회에서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유분자 회장이 재미 한인간호협회 초대 회장이 되었고, 달라스 간호사의 지도자이신 임(호)홍옥 여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미주 한인 이민간호사회는 5개의 회가 있으며 그 명칭과 창립 연도는 <표 4>와 같다. 재미간호협회는 1978년 제 1회 국제 간호학술대회를 위시하여 매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1981년과 1989년 ICN 총회를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하여 ICN에 참석한 간호협회 회원들을 후원하고 회의참석과 모금 등의 지지 활동을 하였다(History of Korean American Nurses, 2001; Yu, 2003). 그리고 중점사업의 한 일환으로 재미간호사를 위한 재미간호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신문발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미주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간호사들의 지위 향상, 2)회원들의 자질 개선, 3)친목을 통한 협력체제 확보, 4)건강지식과 간호정신의 확산을 통해 민족과 세계를 간호하는 것(Korean American Nurses Gather into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99; Lee, 2003)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재미간호협회와 기존의 LA 지역 남가주 간호협회가 갈등과 반목을 겪어야 했다(Korean American

Nurses, 1999). 따라서 임(호)홍옥이 재미간호협회 초대 부회장을, 조(이)호순이 재미간호협회 제2 부회장을 맡고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장과 김은자 재미간호협회 회장은 각 지역 지부장과 임원들의 요청으로, 개인 소유의 재미간호협회 신문을 재미간호협회로 발행인을 변경하는 것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임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하에 미주 최초로 지역 간호사회 대표자 회의를 1983년 4월21일 달라스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뉴욕,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대표자 15명이 참석하였고 조(이)호순 재미간호협회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회의 결과, 회장 및 협회 본부를 윤번제로 하여 협회활동(특히 신문발행)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6년간의 윤번제로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History of Korean American Nurses, 2001).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 회장 이던 김정님 간호사가 재미간호협회 차기 회장이 되어 1985년부터 2년 동안 국제학술대회, 신문 발간, 패션쇼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History of Korean American Nurses, 2001). 이후 재미간호협회 본부가 1985년 7월 달라스로 이전을 해 온 뒤 북 텍사스 간호사회는 재미간호협회와 힘을 합하여 미주지역 전체의 이민사회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즉, 북 텍사스 이민간호사들은 기존의 지역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재미간호협회와 단합하여 하나의 단체로 뭉쳐 보다 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제 18차 ICN 총회(개최지 이스라엘)에 참석하고 유럽, 북미주 순방길에 오른 대한간호협회의 최연순 회장을 비롯

<Table 4>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ies(Association) Founding Dates

Society name	Founding date	Founding president	First meeting place	Total participants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Nov. 20, 1968	Prep Meeting	Parkland Hospital Dormitory, Dallas	21
(Dallas)	May 24, 1969	Bang, Sook Ja	Buchman Lake	21
Midwestern Korean Nurses Society (Chicago)	July 15 1969	Prep Meeting	Rose Restaurant Chicago	30
	Sept. 3 1969	Cho, Sun Ja	Korean Methodist Church, Chicago	18
California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LA)	July 30, 1969	Hwang, Sun Hee	LA Central Church	40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LA)	July 30 1976	YU, Boon Ja	LA	
			(Inactive since 2010)	
Eastern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NY)	Nov. 10 1979	First Meeting	Flushing YMCA	
	May 15 1981	Hong, Ok Soon	Flushing YMCA	27
Hawaii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Honolulu)	Sept. 15 2003	Kim, Jae In	Honolulu	10

한 홍신영 전 회장, 전산초 전 회장과 김의숙 이사 등이 1985년 7월 8일 달라스를 방문했고, 협회 관계자들과 학술교류 및 장학 기금 설치, 교육지원 등을 협의했다. 재미간호협회는 미국 이민 사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인정을 받아 왔고 그 우수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미주 한인이민사회에서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어 왔다(Korean American Nurses Gather into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99).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첫 미주 이민간호사들의 지난 45년간의 발자취를 알아봄으로써 20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진 초창기 미주 취업간호사들이 미주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 시행착오를 통한 어려움의 극복,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재조명하였다. 한인간호사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발자취는 1967년 달라스 파크랜드 병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파크랜드 병원으로 취업 이민을 온 한인간호사들은 30년 이상을 간호사, 간호관리자, 연구자 그리고 간호교육자로서 성실히 일을 하였다. 그들이 1969년에 창립한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는 미주 최초의 간호사 조직으로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북 텍사스 지역 한인사회를 위하여 질병 예방교육과 건강검진 활동 등을 하였다. 또한 한국간호협회의와 관계뿐 아니라 미국 사회 구성원들과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였고 의료봉사, 한인학교 운영 및 후원, 한인회 발족 등의 많은 공헌적 영향을 북 텍사스 한인사회에 끼쳤다. 첫 미주 이민 한인간호사들은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힘든 여러 일들을 극복하였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참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겸손하고 헌신적이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이제 북 텍사스 한인 간호사회원들은 그들이 지난 45년 간 보여준 간호와 인간에 대한 애타정신을 후배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 텍사스 한인간호사회와 미주 한인 간호단체의 과거를 재발견하고 또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문화, 언어, 의료 체계가 다른 곳으로의 해외 취업이라는 도전과 꿈을 가진 후배 간호사들을 위한 귀감이 될 것이다. 첫 미주 이민 한인간호사들의 시련과 고난 극복의 역사는 현재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새로운 경력을 모색하는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북 텍사스 간호사회뿐 아니라 미주 한인간호단체의 과거를 재발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간호의 리더십과 간호 전문직의 정체성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인 한국 간호에 대한 역사적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역사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해외 취업 및 이민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merican Korean immigration history. (2005). *Dallas Korean society*, Unpublished manuscript, Dallas, Texas.
- Barzum, J., & Graf, H. (1985). *The modern researche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Inc.
- Benefits of Korean health fair. (2006 Oct. 20). *Neus Korea Texas*, p.7.
- Big-D nick name Dallas. (1985 January 16). *Hankook IL Bo*, p.5.
- Cho, H. S. (1983). Dallas/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history. *Directory of Overseas Korean Nurses*, 1(86).
- Cho, H. S. (2011). *Angels in White: the North Tex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Houston, Texas, Good Life Publishing Inc.
- Cho, H. S., & Paek, J. (2006). Papilla gown. US Patent office. Retrieved 2011 from www.uspto.gov/web/patents/patog/week11/OG/html/1304-2/US07010812-20060314
- Choi, J. W. (2007). *The roles of oversea Korean for unification policy for North and South Korea*. Seoul: KINU.
- Christy, T. (1975).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Nursing Research*, 24(3), 189-192.
- Dallas Korean society president in Kon Kim's funeral service. (2006 Feb. 10). *Neus Korea Texas*, p.1
- Descending white angels on Dallas. (1999 June 6). *Comerican Post Dallas*, p.11.
- Diabetic management: Man Ja Choi, (2008, June 13). *The Komet Weekly Korean Newspaper*, p.4-5.
- Fox, D. J. (1969). *The research process in education*. The New York: Halt, Rim Park & Winston.
- Health fair: donate Korean school \$ 530. (1984 September 17). *The Korean Journal Texas*, p.8.
- Heart disease Korean children arrived in Dallas. (1984 June 2). *The Korean Journal Texas*, p.5.
- History of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01). *American Korean Nurses Association*, unpublished manuscript. Los Angeles, California.
- Im, H. O. (1982). The first Korean health fair dallas. *Dallas Korean methodist community Service Neus Letter*, p.1.
- 1965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k.a. the Hart-Cellar Act. Retrieved 2011 from http://library.uwb.edu/guides/USimmigration/1965_immigration_and_nationality_act.html
- Korean American nurses gather into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99, June 20). *Koram Post*, p.9.
- Korean American society role model: Dallas Korean American nurses society. (1999, June 13). *Koram Post*. p.9.
- Korean nursing leaders visit. (1969 August 1). Hospital high light, parkland hospital Dallas, *Texas*, p.1

- Lee, J. K. (2003). *Meaning of history of Korean American nurses newspaper, 50 year history of overseas Korean nurses*. LA: The Korean American Nurses Herald Press.
- Lee, Y. B. (1991). *Nursing history*, Seoul: Su Moon Sa.
- North Texas Korean Nurses donate \$3,050 to world christian nurses missionary. (2001 November 21). *HanKook IL Bo Dallas*, p.11.
- Park, J. M. (2003). 100 years history of oversea Korean immigration related to contributions as Korean immigrant nurses. *The Korean Nurses*, 42(6), 12-15.
- Suhri, E. B. (1975). *Evidences of the influence of ruth perkins keelm on nursing and nursing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A.
- The first step of the immigration in the southwest region about 30 years ago: the intermart president, Nae Ung Kim. (2004 December 3). *The Korea Central Weekly Dallas*, p.3.
- The great one hundred nurses. (1997, June 7). *Korean Journal*. p.13.
- Yu, B. J. (2003). *50 year history of overseas Korean nurses*. LA: The Korean American Nurses Herald Press.